

사·부·대·중

스님들의 열린생각

얼마 전 대구에서 미래 사회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다.



홍승 스님 대구 부도암

남이 깨달으신 법이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저 스님들의 기도 힘을 빌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원할 뿐이다.

왜 자각각타의 종교인 불교가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복을 비는 행위가 사찰의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이 있는 반면, 일부 스님들은 소위 '포굴'이라는 개인공간을 마련해 종단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배부르고 등 따습게 살고 있다.

승가 개혁하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는 없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순수성을 되찾는 길, 자기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 그것뿐이다.

얼마 전 대구에서 미래 사회 한국불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주제의 간담회가 열렸다. 전체적인 결론은 이렇다. 한국불교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려면 승가와 재가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다.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내고 대안을 제시할 주체는 누구인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주체는 승가라는 것이었다. 승가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교가 과연 종교집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까.

한 번 현실을 살펴보자. 아직도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기복을 위한 법회만이 진행되고 있다.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부장)

가장 인상에 남는 짙은 향이 나는 불자들이 '순천 선암사'를 주저없이 꼽는다. 대부분의 전통사찰이 '전통'이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대대적인 확장보수공사로 전통미를 잃어버린 곳이 많지만 선암사는 소박한 당우들과 아름다운 자연이 잘 어울려 이러한 정취를 간직하고 있어 고향같은 푸근함을 주는 고찰이다.

그러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 것은 조계-태고 분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이 또한 선암사다. 현재 법적인 주인은 조계종이고 실질적 소유자는 태고종이며, 재산관리인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재산관리인이 순천시장 이 된 것은 소유권 문제로 조계-태고종이 계속 싸움을 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연간 2억원 가량 되는 문화재관람료 수입은 전액이 고스란히 순천시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에 연달아 당회를 도난당했음에도 세를 하나 서둘러 달 수 없을 정도로 사찰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분규가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선암사나 한국불교를 위

선암사와 불교화해

해서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연말 태고종 새 총무원장 종연스님이 인사차 찾아가 자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선암사 주지를 따로 발령 안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암사의 소유권을 태고종에 완전히 넘겨 분규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사실, 선암사 정도는 태고종에 양보해야 한다는 소리가 조계종 일부 스님들간에 있어왔다. 수년전에도 젊은 승가단체인 실천불교승가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선암사는 태고종이 가져야 태고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분규가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공공연히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이 조계종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교계는 이를 계기로 두 종단이 그동안의 소모적인 분규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길 바라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대스님의 말은 새겨 들어야 할 의미가 있다.

"이제는 스님들이 싸우면 모두 공멸하는 시대에기에 원래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종단이 화합해 한국불교를 발전시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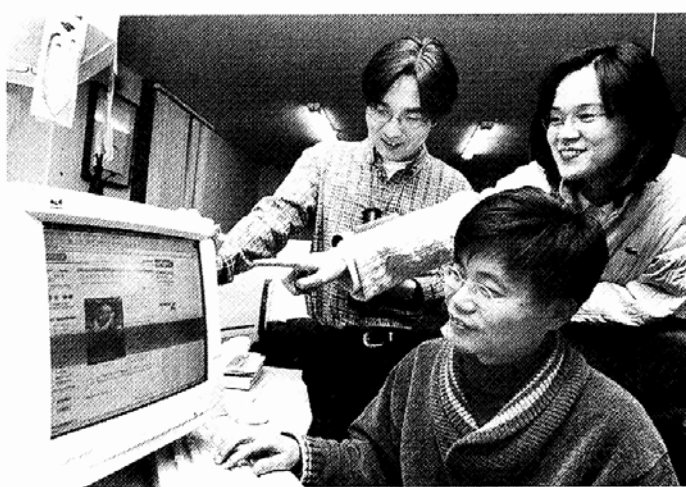
NGO운동 · 안티문화 등 인터넷으로

'제5의 권력' 부상...전자 민주주의 태동

네티즌이 세상을 바꾼다

네티즌이 여론을 주도하는 파워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 '제5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는 '네티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업계 '10대 뉴스'의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인터넷(Ant)사이트 붐들 인터넷사이트의 주 표적은 기성의 권위. 과대광고로 고객을 끌어모은 초고속 인터넷 업체, 소비자를 우롱한 기업, 정책을 잘못 편 정부기관 등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불교정보센터(대표 신화권)는 최근 홈페이지(budgate.net)의 게시판 기능을 강화해 교계 단체들이 온라인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진은 불교정보센터의 작업 현장.

'인터넷 등급제' 도입 백지화 유도 달라이라마 방한 지지 여론형성

화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네티즌의 힘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도 네티즌의 영향력이 미쳤다. '인터넷 등급제' 도입 무산이 대표적인 예다.

▲인터넷 우먼피워 지난해 말 문을 연 여자닷컴(jeozava.com)은 한국의 대표적 여성 운동가들이 만드는 여성 포털 사이트다.

▲불자네티즌 불교계도 디지털 여론의 힘을 다지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97년 군위법 건설로 인 각사(사제 제374회)가 수를 위기에 처했을

때, 송영근(불교정보센터 기술부) 씨가 하이텔에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통신문에서의 '여론 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행정 당국은 디지털 여론에 밀려, 계획과는 달리 사지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담을 건설했다. 이후 가상 공간에서 여론이 형성된 경우는 드물었지만, 99년도 '조계종 사태'를 시작으로 지난해 '지리산 살리기 운동', '달라이라마 방한' 등을 계기로 불교계에서 디지털 여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700만명 넘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1700만 명을 넘었다. 한국갤럽과 (주)베스트사이트가 2000년 12월 6일간 전국 13~4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176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여론을 형성하는 최적의 공간이지만, 먼저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다피아 정보센터(buddhopia.com) 조원희 실장은 불교계 역시 온라인 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대를 맞는다는데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생기는 역기능도 적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다피아 조원희실장



"불교 포털사이트 만들어야죠"

편리하게 인터넷 사이트를 오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문이다. 그런데 조 실장은 '현재까지 불교계는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의 양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정리해 알려주는 포털 개념의 사이트 역시 없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1700만명 넘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1700만 명을 넘었다. 한국갤럽과 (주)베스트사이트가 2000년 12월 6일간 전국 13~49세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사람은 176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탕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손을 붙여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인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